

왜 생명교육인가?

고 제 순(생명교육연구소장, 강원 원주)

1.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선 제 3의 대안적 이념 모색: ‘생명주의’

흔히 21세기를 ‘영성의 시대’ 또는 ‘생명의 시대’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근간에 생명에 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반(反)생명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생명’을 이 시대의 화두로 삼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1세기는 생명의 시대이다”는 슬로건은 생명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극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동시에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어쩌면 인류생존의 마지막 절규일런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인류를 생명의 위기로 내몰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공멸이라는 두려움의 늪으로 빠뜨렸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인류자신이 만든 두 가지 강력한 이념적 무기 때문이다. 하나는 공산주의요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이다. 세계를 지배해온 이 두 가지 이념의 암초에 부딪혀 지구라는 생명의 배는 표류하고

있다. 희망의 섬이 보이지 않는다. 한입에 삼킬 듯한 거친 파도에 이미 반은 기울어 서서히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가 바로 오늘날 지구 생명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이 침몰되어 가는 선상에 놓여있음을 자각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인류를 지배해온 두 가지 세계이념의 실상을 이제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의 관념적 허상을 체험하였고 자본주의의 천박한 속성을 경험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고 자본주의는 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류는 명확히 직시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로는 더 이상 생명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이념의 지배아래에서는 인류공생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중 한 가지는 거의 폐기처분되었으며 맘껏 기승을 부리는 남은 한 가지도 곧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틀을 넘어선 제3의 대안적 패러다임(alternative paradigm)은 무엇일 수 있는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이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주의’로 표현될 수 있겠다. 공산주의가 다양성을 무시한 채 통일성을 추구하고, 자본주의가 통일성을 간과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생명주의는 ‘다양성의 통일성’을 표방한다. 또한 전자의 슬로건은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로 대변되고, 후자의 표어는 “흠어지면 살고 몽치면 죽는다”로 표현되는 듯 하다. 그래서 전자는 획일주의로 특징 지워 지고 후자는 분리주의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전자는 극음이요 후자는 극양이다. 그러나 생명주의는 음양의 변증법이다. 따라서 생명주의의 이념은 ‘흠어져서 하나로!’로 집약될 수 있겠다. 모든 생명은 현상적으로 구분되나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르지만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異而不二). 따라서 생명주의의 내용은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다”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겠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한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본질’을 뜻한다. 즉 모든 생명은 본질이 같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생명에는 우열이 없다. 생명의 관계는 주종(主從)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이다. 모든 생명은 살려고 애쓴다는 점에서도 평등한 것이다. 개미도 살려고 애쓰고 나무도 살려고 애쓰고 사람도 살려고 애쓴다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평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또는 섬김의 관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생명의 관계는 ‘하나’가 된다.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써만 서로가 살 수 있는 섬김의 관계가 생명의 본질적 관계이다. 모든 생명체는 섬김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요 ‘유기체적 하나’이다.

이러한 생명주의는 21세기의 모든 인류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적 이념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세계이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상생이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생명교육의 당위성

생명주의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교육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교육은 이 시대를 무한경쟁의 시대로 규정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천박한 속성인 경쟁의 논리가 더 이상 교육내용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를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죽임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현행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지금껏 우리의 교육은 생명의 본질, 이치, 원리, 질서에 대한 총체적, 통일적 인식이 결여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껏해야 자본주의 이념이 결합된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편협한 교육이었다. 그로 인해 생명의 관계를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경쟁의 논리로만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규정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이 진리인 것처럼 인간중심적인 생명관을 가르쳐 왔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심각한 교육의 오류이다. 이것은 일종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중의 가장 큰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생명세계는 대혼란이 야기되었고 생명의 본질은 왜곡되었고 생명의 질서는 파괴되었으며 생명의 조화는 깨졌고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의 평화는 금이 갔으며, 결국 인간이란 한 생명체에 의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공멸(共滅)의 벼랑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교육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공멸의 벼랑에서 벗어나서 공생의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생명의 위기를 야기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을 넘어서는 '생명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에 관한 총체적이고도 본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명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3. 생명교육에 대한 세 가지 단상

생명교육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생명의 교육(education of the life), (2)생명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the life), (3)생명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life)이 그것이다.

첫 번째, 생명의 교육(education of the life)은 교육의 내용을

함의한다. 교육내용의 핵심 주제가 생명이다. 생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체득하게 하는 교육이다. 즉 생명의 본질, 이치, 원리, 질서 등 생명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의 교육'은 생명교육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모든 생명은 생명성을 지니며, 생명성은 상대계에서 몸성, 이성 그리고 영성의 통일적 양식으로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 삼자는 현상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삼중적 통일성을 지닌다. 삼위(三位)이면서 일체(一體)요, 일체(一體)이면서 삼위(三位)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몸성적, 영성적 존재인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란 생명체는 신체, 마음 또는 정신 그리고 영혼의 통일적 삼중존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만 규정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생명의 교육'은 몸, 마음 또는 정신 그리고 영혼과 연관된 공부가 주된 교육내용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교육은 몸성교육, 이성교육 그리고 영성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에 관한 학문을 생명학이라 지칭할 수 있다면 생명학은 몸성학, 이성학 그리고 영성학으로 세분될 수 있겠다. 우리의 현행교육은 몸성학과 영성학을 등한시하고 이성학과 연관된 교육에만 집중해 온 지극히 기형적인 교육이라 하겠다.

두 번째, 생명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the life)이란 교육자의 자기교육을 뜻한다. 교육자는 생명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생명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생명을 살리는 자기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생명의 본질, 이치를 모르고서 생명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자기개혁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외치는 사람은 덜 떨어진 정치가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교육자는 아니다.

생명교육자는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생명의 이치 또는 질서에 따

라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상적 삶이 곧 생명교육이다. 생활이 곧 생명의 가르침이다. 생명교육자는 끊임없는 자기성찰, 자기반성, 자기점검의 공부를 통해 생명의 본질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이 시대의 참된 생명교육자이셨다. 선생님은 생명의 본질을 통찰하시고 생명의 이치대로 사셨다. 선생님은 이론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셨다. 선생님의 일상적인 삶이 곧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격려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선생님의 자기점검은 "나는 매일 넘어지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만큼이나 철저하셨고 감동적이다.

“나는 가끔 한밤에 풀 썩에서 들려오는 벌레소리에 크게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만상(萬象)이 고요한 밤에 그 작은 미물이 자기의 거짓 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평상시의 생활을 즉각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의 도구로 하는 삶의 허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게 됩니다“(『나락 한알 속의 우주』 8쪽)

선생님은 벌레뿐만 아니라 길가의 짓밟힌 잡초를 스승으로 모셨으며, 필방에서 만난 어느 고등학생을 선생님으로 모셨고, 어린아이와 아녀자도 배울만한 것이 있으면 스승으로 모시며 사셨다. 심지어 암세포까지 모시고 사셨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교육자의 상(像)을 온 삶으로 보여주셨다. 생명인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life)은 생명의 상생 또는 공생을 위한 교육을 뜻한다. 생명교육은 인간만이 잘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이다.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모시고 섬겨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교육은 모심의 교육 또는 섬김의 교육이다. 모든 생명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모시고 섬기는 교육이다. 모든 생명을 받들어 섬기는 교육이다.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타 생명체와의 생명의 소통이 가능할 수 있고 타 생명체와의 합일의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주객(主客)분리의식이 사라지게 된다.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사실을 진리로써 체득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인, 자연인,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㉞